

AI 활용 사례 공모전 신청서

제안 사례

시험 오답을 모아 AI에 '내가 틀린 이유를 진단하고, 약점만 공략하는 3일 복습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는 오답의 유형(개념 오해, 계산 실수, 해석 오류)을 분류하고, 각 약점에 맞는 유사 문제를 만들어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올려 줍니다. 전체 범위를 통째로 다시 공부하는 대신 실제로 부족한 개념만 집중해서 시간을 절약했고, AI가 만든 유사 문제 덕분에 실전 감각도 유지됐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오답 노트를 AI에 넣는 방식이라 비용 없이 개인 과외 선생님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AI가 '진단·계획·문제생성'의 교사 역할을 보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